

[발표 4]

가정폭력 행위자 변화동기와 가족요인에 관한 연구

송아영¹⁾(연세대 박사과정)

I. 연구의 필요성

가정폭력에 대한 공적 개입방법으로서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이 가장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전개되었다(Gondolf, 1999, 2000a, 2000b, 2003; Tolman & Bennett, 1990).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이러한 가해자치료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에 대한 방법적인 문제점이 의문을 제기하는 움직임이 등장하였다. 신체적재폭력의 감소에만 초점을 맞추는 효과성 분석방법은 가해자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등장하였다(Bowen & Gilchrist, 2004). 이들은 가해자프로그램 직접 참여 당사자인 가해자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정한 의미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Holtzworth-Munroe & Stuart, 1994, Levesque et al., 1998; Tolman & Bennett, 1990).

가해자치료프로그램의 변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변화동기에 주목하였다. 김재엽(2005), Bowen & Gilchrist(2004), Henning & Holdford(2005), Dehart, Kennerly, Burke & Follingstad(1999) 등의 학자들은 가해자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과 가해자의 진정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변화동기가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가해자들의 신체적 재폭력률을 줄여주는 외적 동기의 요인도 중요할 수 있으나 가해자 스스로 변화를 책임지고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적 동기 요인으로 변화동기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김재엽(2005)은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가해자의 프로그램 전체기간 동안 참여를 동기화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프로그램 운영자는 보다 지지적인 접근방식으로 가해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해자의 변화동기는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특히 가족 체계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노력은 가정폭력 이슈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가족체계적 관점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개인적 원인 외에 다양한 요인이 가정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Mignon, Larson & Holmes(2002)는 가족구성원 간의 폭력은 보이는 것 보다 다양한 원인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가족구조,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특성, 좌절, 갈등 등의 요인은 단지 가정폭력의 일부 원인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기존 가정폭력 가해자에 관련한 연구에서는 가해자의 변화동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

1)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

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단순히 피해자로서 이해함으로써 가정폭력의 복잡한 특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한계를 보완하여 가정폭력 가해자의 변화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요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가해자의 변화동기와 가족요인에 대한 선행연구가 전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 탐색적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II. 연구방법

1. 측정도구

1) 가해자의 변화동기

가해자의 변화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URICA-DV척도를 사용하였다. URICA-DV 척도는 초이론모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심리학에서 주로 사용되던 URICA(University of Rhode Island Change Assessment) 척도를 가해자들을 위한 URICA-DV(Domestic Violence)로서 변환하는 작업을 통해 개발되었다. 본 작업은 Levesque et al.(2000)에 의해 이루어졌다. .

전체 구조화된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 7, 9, 15, 20번 문항은 전속고단계에 해당하며 2, 5, 10, 13, 18번 문항은 숙고단계에 해당하며, 4, 6, 12, 14, 17번 문항은 행동단계에 해당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유지단계는 3, 8, 11, 16, 19번이 이에 해당한다.

2) 가족요인

연구 참여 행위자의 가족요인은 다음과 같은 척도를 통해 측정되었다.

(1) 부부요인

- 결혼상태 : 가해자의 결혼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배우자와 현재 결혼 상태는 어떠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응답범주로서 '①동거 ②이혼 ③별거 ④이혼소송 중'으로 구성하였다.
- 결혼만족도 : 본 연구에서 부부관계의 질을 살펴보기 위해 연세대사회복지연구소(1999)에서 사용한 Marital Happiness Scale(MHS)을 사용하였다.

(2) 자녀요인

- 자녀동거여부 : 가해자의 자녀동거여부를 묻기 위해 "자녀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의 단일문항을 구성하였다.
- 부모역할 만족도 :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의 자녀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현운강과 조복희(1994)가 개발한 부모역할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4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 차원 중 '배우자지지', '일반적만족도'를 제외한 '부모-자녀 관계(10문항)', '부모역할갈등(11문항)', '자녀의지지(6문항)'의 3 하위 척도를 최종설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문항은 31문항이다..

3) 기타요인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행위자의 변화동기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변수를 통제하였다. 행위자의 참여 전 대기시간과 프로그램 참여 경로, 음주 정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가족변인과 행위자 변화동기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전국 가정폭력상담소에 의뢰되어 가정폭력가해자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가해자들이다.

2006년 하반기 11월에서 12월에 상담프로그램을 하기로 되어있는 상담소의 소장 및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본 연구의 중요성과 의미를 설명한 후 협조를 구하였으며, 그 결과 13개 기관 총 예상 가해자 123명이 초기 예상 조사대상자였다. 설문을 11월 첫째 주부터 배포하였으며, 설문을 보내기 전, 보낸 후, 예상 프로그램 시작 전 3~4회에 걸쳐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협조를 계속해서 요청하였다. 협조 동의하에 각 기관의 담당자 및 소장은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하게 되는 가해자에게 설문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며 가해자는 질문을 읽고 스스로 응답하는 자기 보고식 설문을 실시하게 되었다.

5개의 기관이 예상되어 있었던 프로그램을 취소하여 총 8개 기관에서 설문을 반송해 주었으며 그 결과 72개의 설문이 최종적으로 수거되었다. 수거된 설문지의 양이 적은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응답케이스 10개를 제외한 60부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IV. 연구결과

1. 가정폭력 가해자의 가족요인의 변화동기 각 단계에 대한 영향력 검증

다음은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행위자 가족요인과 변화동기와의 관계를 검증한 내용이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 2>에 나타나 있다.

<표 2> 가해자 변화동기 단계 별 가족요인 효과 검증(n=60)

	전속고단계			숙고단계			행동단계			유지단계			
	B	β	VIF	B	β	VIF	B	β	VIF	B	β	VIF	
연령	.007	.104	1.153	.009	.067	1.142	.017	.161	1.149	-.101	-.106	1.153	
학력	-.005	-.013	1.355	.240	.313	1.388***	.097	.157	1.354	.089	.160	1.355	
월평균수입	-.001	-.184	1.532	.001	.124	1.557	.000	.072	1.527	-.001	-.205	1.532	
직업1	-.202	-.138	1.892	-.765	-.259	1.889	-.238	-.191	1.739	-.796	-.357	1.892	
음주정도	.008	.060	1.282	-.063	-.236	1.268**	-.045	-.195	1.232**	-.036	-.179	1.282***	
대기시간	.004	.205	1.358	.002	.068	1.358	.002	.058	1.380	-1.98E	-.001	1.358	
프로그램참여경로2	-.036	-.029	1.395	.140	.056	1.389	-.063	-.029	1.380	-.443	-.233	1.395	
부부요인													
결혼상태	이혼소송중	.034	.021	1.668	-.312	-.094	1.679	.248	.089	1.680	-.149	-.059	1.668**
	이혼/별거	.489	.177	1.304	-.417	-.075	1.312	-.392	-.084	1.314	.080	.019	1.304
결혼만족도	-.000	-.003	1.544	.101	.039	1.540	-.039	-.182	1.536	-.054	-.278	1.544***	
자녀요인													
자녀동거여부3	.039	.034	1.205	.142	.061	1.224	.223	.114	1.208	-.063	-.136	1.205	
부모역할만족도	부모역할갈등	.018	.173	1.786	-.034	-.153	1.820	-.044	-.246	1.808**	.074	.457	1.786***
	자녀지지	-.027	-.135	2.793	.173	.422	2.675***	.074	.217	2.012	.132	.428	1.987***
	부모자녀관계	-.019	-.174	2.235	.033	.146	2.312	.029	.157	2.312	.005	.032	2.214
		R=.472 R2=.228 F=.839			R=.584 R2=.341 F=1.763**			R=.644 R2=.415 F=2.028***			R=.627 R2=.393 F=1.900**		
* 0.1<P<0.15, **P<0.1, ***P<0.05													
1. 직업있음=0, 없음=1 2. 자발적 참여=0, 비자발적 참여=1 3. 같이 살고 있음=0, 따로 살고 있음=1													

전체 변화동기를 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전속고단계의 경우 가해자의 부정적이고 거부적인 태도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어떠한 변인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고단계의 경우 자녀지지(P<0.05)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지지가 긍정적인 행위자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알게될 가능성이 높고 변화의 이득을 타진하기 쉽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행동단계의 경우 자녀요인 중 이번 단계에는 부모역할갈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행위자가 아버지로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역할에 갈등을 느끼는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지단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부부요인 중 결혼만족도(P<0.05), 자녀요인 중 부모역할갈등(P<0.05), 자녀지지(P<0.05)요인이 유의미한 변

수로 나타났다. 행위자가 변화를 지속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긍정적인 결혼만족도와 자녀와의 긍정적 관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Ⅶ.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정폭력 행위자의 변화동기가 행위자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행위자의 변화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요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변화동기의 각 단계 별 특징이 고유하고 한 개인에게 여러 단계의 변화동기 수준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단계별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위의 <표 2>에 나타나 있다. 결과를 통해 구체적인 행위자 변화동기 관련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가해자의 변화를 도모하는 데 가해자와 상호작용하는 주 대상인 가족을 고려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 ② 부부관계 뿐 아니라 자녀요인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③ 부부폭력 문제 안에 자녀를 역동적인 존재로서 재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④ 행위자 변화동기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고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